

원효와 베르그송의생명이해

하나의 해석학적 비교

Wonhyo and H. Bergsons Understanding of Life: A Hermeneutical Comparison

저자 (Authors) 한상우
Han, Sangwoo

출처 (Source) [종교문화학보 6](#), 2009.5, 129-161(33 pages)

발행처 (Publisher)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n and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67614>

APA Style 한상우 (2009). 원효와 베르그송의생명이해. 종교문화학보, 6, 129-16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26 15:2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원효와 베르그송의 '생명' 이해: 하나의 해석학적 비교

한 상 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I. 서론

II. 생명과 생명체에 대한 이해

1. 원효: 생사열반의 동일성과 모든 생명체의 동등성
2. 베르그송: 생명진화와 모든 생명체의 동등성

III. 생명과 자유와 사랑

1. 원효: 무애의 진리와 자비
2. 베르그송: 생명과 창조, 생명의 도약

IV. 결론

요약문

‘삶’과 ‘생명’(life)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가장 오래된 근본적인 문제지만, 전통의 종교와 철학으로는 오늘날 새롭게 대두된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매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 존재이고 문화적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생명’에 대한 의문을 풀어갈 수밖에 없다. 또한 문화가 다르면 가치관이 다르고 문제 해결방식도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전통 안에서 형성된 가치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문화는 전통의 불교적 유교적 요소들과 서구의 그리스도교적 그리스·로마·게르만적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 사상은 물론, 서구의 철학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대, 역사, 문화, 종교적 배경이 서로 매우 상이한 원효(元曉)와 앙리 베르그송(H. Berson) 두 철학자의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해석학적’으로 비교해보고자 한 것이다.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원효와 베르그송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해석학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면, 1) 모든 생명의 동등함, 2)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 삶에 대한 긍정, 곧, 생명과 자유가 될 것이며. 3)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자비(사랑), 곧 생명과 사랑(자비)이다. 두 위대한 철학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치열하게 물질의 저항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생명)을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하고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생명, 동등성, 창조, 자유, 사랑, 승화

I. 서론

사유하는 존재로 살기 시작한 이래로 인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생명의 의미를 해명하려고 노력하며 그 삶의 종막으로 여겨지는 죽음 앞에 비통해하고 고뇌해왔다. 그러므로 ‘삶’과 ‘생명’(生, 生命, life, das Leben, la vie)¹⁾의 문제는 언제나 종교와 철학의 중심과제 중의 하나였다.

철학적 반성 이전에도 이미 신화와 종교를 통해 이 의문에 대한 해

1) 삶(生)과 생명(生命), life, das Leben, la vie는 엄격한 의미에서 비교한다면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또 철학자마다 이 개념들을 사용함에 있어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베르그송의 생철학에서 la vie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 곧 삶과 생명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사용하기로 한다.

명의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이집트인들은 스팅크스의 질문을 통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던졌었고, 파라오들이 영생하도록 미라로 만들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와는 달리 오직 이승에서의 삶만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삶과 생명이 신의 손안에 놓인 주사위나 장기들이라고 여겼다. 마야인들이나 잉카인들은 만물과 모든 생명의 근원인 태양이 힘을 잃지 않도록 산 사람의 심장을 무수히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대인과 야생인들은 인간의 삶도 자연의 순환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고 보아 봄-여름-가을-겨울의 사시(四時)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생각은 현대인들에게도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영혼이 레테의 강을 건너와 육체 안에 갇힌 (incarnation) 존재라 여기며, 죽음이란 '영원한 잠'이거나 '본래의 고향 (idea)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겼다.²⁾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 교화한 서구문화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이승의 생은 천상의 왕국으로 가는 순례, 또는 여정이라 여겨졌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우리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과, 삶이 지니고 갈 수 밖에 없는 고통은 집착에서 오는 것이니 집착을 버리고 참된 도에 이르라는 고집멸도(苦集滅道)의 가르침을 주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수많은 불교철학자들과 출가인(出家人)들은 물론이고 불교 문화권에 속해서 삶을 살아온 수많은 일반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은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인간 존재의 신비하고 독특한 성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의학과 과학의 급격한 발달로 말미암아 드러

2) Platon, *Apologie-Kriton-Phaidon*, Patmos Verlag, Düsseldorf/Zürich, 2004, pp.55-63.

나게 된 인간 신체의 특성, 곧 화학원소, 물리법칙, 생물학적 원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간의 모습에서 기인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 변이는 ‘인간의 생명’과 그 지속, 지속을 위한 수단들, 생명의 포기과 관련된 인간 존엄성의 문제 등, 과거의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이 맞닥뜨렸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의 ‘생명’의 문제는 기존의 철학과 종교적인 해답모색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 존재이고 문화적 존재이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과 문화의 계승자이고 그것의 전달자이며, 과거와의 연관성 속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생명’의 문제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의 총체성 속에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딜타이(W. Dilthey, 1833-1911)가 말하듯 모든 이해(Verstehen)는 선이해(Vor-verständnis)에 기초하는 것이기에,³⁾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미래의 실마리를 찾는 방식 곧,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생명’에 대한 의문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역사와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자라는 것은, 주어진 똑같은 문제도 문화가 다르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다른 해결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전통 안에서 ‘생명’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의 문화는 전통의 불교적 유교적 요소들과 서구의 그리스도교적 그리스·로마·게르만적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 이것은 오늘 한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생명’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3) W. Dilthey,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1, p.263.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 사상 속에서의 ‘생명’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동시에 서구의 전통 속에서의 ‘생명’의 이해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원효(元曉, 617-686)와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 1877-1943) 두 철학자의 생각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원효와 베르그송은 산 시대도 7세기와 20세기로 전혀 다르고, 한국문화와 불교문화가 결합된 원효의 문화배경과 프랑스 문화와 유대문화가 섞인 베르그송의 문화배경도 서로 다르다. 그들의 ‘생명’과 ‘생명체’에 대한 지식도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철학사상을 형성하고 있는 언어와 개념들도 매우 이질적이다. 하지만 한국불교철학을 대표하는 원효와 생철학을 대표하는 베르그송의 사상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문제에 대한 선이해적인 접근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생명’ 이해를 비교해보고 그 공통점, 또는 접합점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해명(Erhellung)하고 이해(Verstehen)하려는 작업을 삶의 해석학(Hermeneutik des Lebens) 또는 해석학적 역사주의의 창시자인 딜타이(W. Dilthey)의 입장에 의거해서 실행하려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해석학적(hermeneutisch)’이라 부른다.⁴⁾ 이제 원효 큰 스님과 베르그송의 ‘생명’ 이해를 ‘해석학적’으로 비교해보기로 하자.

II. 생명과 생명체에 대한 이해

1. 원효: 생사열반의 동일성과 모든 생명체의 동등성

원효(元曉, 617-686) 큰 스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위대한

4) W. Dilthey, Ibid. p.278; Riedel, Manfred, Einleitung in Wilhelm Dilthey, p.45.

종교인이요 불교철학의 대가이다. 그러므로 원효의 사상이 삶은 고통이며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운 부다(Buddha)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삶은 워낙 독특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세계관과 매우 가까이 있었기에 그의 ‘생명’ 이해도 독특한 면모를 지닌다.

그의 깨달음은 해골 물을 ‘실계로’ 마시고 비릇되었다고 하고, 무덤에서 잠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도 한다.⁵⁾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깨달음을 얻었느냐는 것보다는 죽음 또는 주검의 체험을 통해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님(生死如一)’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또한, ‘더러운 땅과 깨끗한 나라가 본래 일심이요(穢土淨國本來一心), 나고 죽음과 열반이 끝내 두 가지가 아니다(生死涅槃終無二際).’⁶⁾ ‘움직임과 고요함도 한바탕 큰 꿈이요, 생명의 흐름도 없고 열반의 적멸도 없으며, 예토와 정토가 본래 ‘한 마음’(一心)이니,⁷⁾ 삼보이기도 한 이 일심으로 돌아가라는 가르침(歸命)을 주었다는 점이다.⁸⁾

하지만 평범하고 아둔하기 짝이 없는 보통사람들은 그것이 둘이 아님을 얻기가 진실로 어렵고, 미혹한 하나의 꿈을 버리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無二之覺取之良難 迷一之夢去之不易).”⁹⁾ 물론 우리도 “좋은 음식 먹이고 사랑하여 길러도, 이 몸은 반드시 허물어질 것이요, 비단 옷으로 보호해도 목숨은 반드시 끝나 때가 있으리(甘愛養 此身定壞 着柔守

5) 김상현, 『역사로 읽는 원효』(서울, 민족사, 1991), pp.95-100 참조.

6) 『아미타경소』; 김상현, 상동, p.301.

7) 『유심안락도』(『국역 원효성사전서』 권6, pp.65-66).

8) 정순일, 『大乘六情懺悔考』(김지건 편, 『원효성사의 철학세계』, pp.397-399).

9) 『불설아미타경소』(『국역 원효성사전서』 권4, pp.29-31).

護 命必有終))”¹⁰⁾라는 것을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와있다는 것을 모른다.

수행 없는 빈 몸은 길러도 이익 없고,	無行空身 養無利益
무상하고 덧없는 목숨은 아껴도 보전하지 못한다.	無常浮命 愛着不保
사대는 곧 흩어지니 오래살기 기약 없고	四大忽散 不保久住
오늘은 이미 저녁, 아침부터 서둘러야 하리라.	今日夕矣 頗行朝哉
몇 생을 닦지 않고 헛된 세월 보냈으며	幾生不修 虛過日夜
헛된 몸 얼마나 산다고 일생 닦지 않는가?	幾活空身 一生不修
이 몸은 반드시 끝이 있으니 후신은 어찌할 것인가?	身必有終 後身何乎
바쁘고 급하지 않는가? 바쁘고 급하지 않는가?	莫速急乎 莫速急乎 ¹¹⁾

그래서 원효는 ‘사대는 곧 흩어지니 오래살기 기약이 없고 오늘은 이미 저녁’이라며 길지도 않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찰나에 불과한 짧은 생을 사는 헛된 몸, 수련과 수행을 서두르고 서두르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기만 한다.

내일이 지나면 또 내일 내일이 어찌 그리 많겠는가.	明日後明日 明日何其多
나의 생은 내일을 기다리다가 모든 일 덧없이 흘러갔으니	我生待明日 萬事成蹉跎
이전의 푸르른 꿈들이 어느새 백발이 되어구나.	宿昔青雲志 蹉跎白髮年 ¹²⁾

‘푸르른 꿈이 백발이 되어버렸구나’라는 표현은 앞의 글에서보다도 더 삶의 ‘덧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앞의 글이 타인에게 충고하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자신의 삶의 덧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원효의 삶의 낭비에 대한 후회로 읽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오히려 심우도(尋牛圖)의 소를 찾아 나섰던

10) 『발심수행장』; 김상현, 상동, p.299.
 11) 『발심수행장』; 김상현, 상동, p.300.
 12) 『대승기신론소』; 김상현, 상동, p.302.

소년이 백발이 되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의상 대사가 말하듯 ‘초발심(初發心)이 정각심(正覺心)’¹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원효는 결코 우리의 삶과 생명을 ‘찰나’와 ‘먼지’에 불과한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명(命)’은 목숨의 근원으로, 모든 기관을 총체적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한 몸뚱이에 요긴한 것으로 이보다 앞설 것이 없다. 이 돌도 없는 목숨을 가지고 가장 존귀하신 분을 받들어 신심의 지극함을 나타내기에 ‘귀명(歸命)’이라 한 것이다.¹⁴⁾

생·명’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말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이다, 물론, 그것에 집착해버리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생과 사가 서로 다른 것으로 여기며, 이 생사가 열반과 서로 다른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참된 진리의 세계에로 나갈 수도 없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도 없다. 그러니 집착은 버려야 한다. 그래서 목숨을 돌려야 하는 것, 곧 귀명(歸命)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효는 놀랍게도 이렇게 귀한 생명을 없애도, 그것도 사람을 살인(殺人)해도 괜찮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즉, <범망경보살계본 사기>에서 살인이 죄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경우, 죄도 복도 안 되는 경우, 복도 화도 되지 않는 경우와 죄가 가벼운 경우, 죄가 무거운 경우의 네 가지로 나누고, 죽이지 않고는 제도(濟度)가 불가능한 사람을 보살이 죽였을 때에는 복이 되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⁵⁾ 하지만 이것은 원효가 살인을 정당화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13) 의상, 이기영 역, 『화엄일승법계도』(『한국의 불교사상』, 서울, 삼성출판사, 1976), p.260.

14) 『대승기신론소』; 김상현, 상동, p.50.

15) 윤종갑, 『한국고대불교와 생명윤리』(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편, 『한국문화와 생명윤리』, p.67)

이러한 생각은 오직 원효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 곧 '생사열반불이(生死涅槃不二)'의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모든 죄업은 실지로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연(緣)이 화합한 것을 이름 붙여 업이라 함이니, 연 자체에 업이 없고 연을 떠나서도 또한 업은 없다.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며 가운데에도 있지 아니하다. '과거는 이미 없어졌고 미래는 아직 생기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무름이 없다'(過去已滅 未來未生 現在無住). 그러므로 지은 바 죄도 머무름이 없고, 머무름이 없으므로 또한 생(生)함도 없다...업의 성품이 본래 생함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 본래부터 생함이 없었는데 어느 곳에 마땅히 생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생한다는 것과 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두 옳지가 않으며, 옳지 않다는 말 또한 옳지가 않은 것이다. 업의 성품이 그러하듯이 모든 부처님 또한 그러하다.¹⁶⁾

이 '합하고 흠어짐도 없고, 유도 무도 없고, 생과 사도 없으며, 연도 업도 없다'는 선언이 있기에 '구제가 불가능한 이를 죽임은 오히려 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바로 여기 미쳐 날뛰며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있는 살인자가 있다면, 이를 방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효의 생각은 원광법사의 <세속오계(世俗五戒)>에서 말하는 '살생유택(殺生有擇)'의 의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살생유택'은 부처님의 계율인 '불살생(不殺生)'과는 사뭇 다르다. 계다가 임전무퇴(臨戰無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나머지 셋(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도 오륜(君臣有義, 父子有親, 朋友有信)의 다른 표현으로 보일 뿐이다. 이는 마치 원광법사가 부처님의 계율은 단지 출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이 세속오계는 원광법사가 세속과 불교의 계율을 구분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는 것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생명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한

16) 『대승육정참회(大乘六情懺悔)』(『국역 원효성사전서』 권6, pp.694-696).

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가 남긴 다른 기록을 보면 이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육제일(六齊日)과 봄, 여름에는 죽이지 말 것이니 이것은 때를 가리는 것이고, 기르던 생명은 죽이지 말 것이니 소나 말, 닭이나 개 등을 말하는 것이다. 작은 생명을 죽이지 말 것이니 살코기는 한 점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려서 죽이는 것이다. 가려서 죽이되 오직 쓸 만큼만 하고 많이 죽이지 말라. 이것이 세속의 선행이니라.¹⁷⁾

이렇게 볼 때 원효의 업과 무관하고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는 살인도 있다는 생각은 위의 원광법사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며,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죽임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리 생명존중을 외치더라도 결국 살아있는 생명의 죽임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자연 법칙의 하나인 먹이사슬의 연결고리들이 그렇게 되어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모든 생명이 다 평등하고 동등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어느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를 원효는 ‘평등성지(平等性智)라 부른다.

‘대승의 넓은 지혜(大乘廣智)란 곧 평등성지(平等性智)다. …무애(無我)에 놀기 때문에 나 아닌 것이 없고, 나 아닌 것이 없으므로 또한 평등하게 포섭하지 않음이 없다. 이 동체지력(同體智力)으로 끝없는 중생을 두루 실어 무상보리(無上菩提)에 모두 다 함께 이르게 한다. 이 까닭에 ‘대승의 넓은 지혜(大乘廣智)라 한다.’¹⁸⁾

대승의 넓은 지혜란 모든 것이 평등함을 깨닫는 지혜이다. 너도 없고 나도 없으며,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너와 나는 하나이며 동

17) 일연, 이민수 역, 『삼국유사』, pp.297-298(제4권, 의해(義解) 제5); 윤종갑, 상동, p.67 참조.

18) 『대승기신론소』(김상현, 상동, p.315 참조).

시에 동등하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참된 진리의 세계, 참된 자유의 세계,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계에 다다르도록 깨우치는 지혜’(同體智力)이기에 그것을 ‘넓고 큰 탈 것의 지혜’(大乘廣智)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륵상생경중요>의 ‘자애로움과 불쌍히 여김과 기뻐하며 집착하지 않는 네 가지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동등하게 적신다’(四等之情 等潤四生)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¹⁹⁾ 원효는 모든 생명체를 동등하고 평등하게 여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원효의 생명에 대한 이해는 베르그송의 그것과 만난다.

2. 베르그송: 생명진화와 모든 생명체의 동등성

‘생명’의 문제를 철학적 탐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삼았던 철학자들을 서양 철학사에서는 생철학(*philosophie de la vie*)이라는 사조로 분류한다.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20세기 초, 중반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다, 실존주의(*Existentialismus*)에 그 자리를 넘긴 철학사조이다. 그 중심인물로는 니체(*F. Nietzsche*), 딜타이(*W. Dilthey*), 베르그송, 우나무노(*M. de Unamuno*), 가세트(*O. Y. Gasett*) 등을 꼽는다. 이들은 비록 학문적인 배경이나 영향력, 학문하는 방법 등은 서로 상이하지만, 삶의 흐름 배후에 어떤 고정된 실체(*Substanz*)가 있지 않고 생성과 삶의 흐름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것이라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삶을 움직임(*Bewegung*), 생성과 소멸의 과정(*Prozeß des Werdens und Vergehens*), 끊임없는 흐름(*ständiges Fluß*)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니체가 ‘자기를 초극하려는 삶’과 ‘가치의 전도’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딜타이는 ‘역사적 삶, 문화적 삶’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우나무노는 ‘살과 뼈를 가진 인간의 삶이 지니는 유한성과 그 비극적 의미’에

19) 『미륵상생경중요』(『국역 원효성사전서』권2, pp.138-143).

관해 관심을 쏟으며, 가세트는 삶을 ‘정지도 휴식도 없는 행위’, ‘드라마’, ‘자신을 이기기 위한 싸움’으로 이해한다.²⁰⁾

그런데 베르그송은 프랑스 유심론(唯心論)의 전통을 잇는 전형적인 철학자이면서도 ‘생명’ 및 ‘삶’(la vie)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당시의 생물학적 이론들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인간과 인간 간의 의식 곧 자아를 양(量)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質)적인 변화를 하는 지속(持續, durée)이라고 본 베르그송은 『창조적 진화론』에서는 생명일반의 의미, 식물과 동물과 인간, 그리고 종(種)과 개체로서의 유기체, 생명유기체로서의 인간과 그 인간이 속해있는 생명의 장(場) 안에서 펼쳐지는 창조와 진화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는 생명일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삶과 문화, 사회와 윤리의 문제로 나아갔던 것이다.

베르그송에 의하면 생명이란 하나의 단순한 움직임이다. 즉 생명일반은 ‘움직임’(可動性) 그 자체이며 생명의 본질은 생명을 전하는 운동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서의 생물은 생명과 물질의 타협이며 생명이 통과하는 ‘곳’이다. 그래서 “생명은 발달된 하나의 유기체의 중계로 한 배자에서 다른 배자로 옮겨가는 흐름과 같은 것”²¹⁾이다.

물론 베르그송도 생명체가 기계장치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일관된 작업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해내는 하나의 독립된 공장과 유사한 작업을 생명체의 유기조직이 수행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이다. 하지만 생명은 결코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다. 곡선이 직선들의

20) Cf. O. Y. Gasset, *The Revolt of Masses*, Ch. 14.

21) H. Bergson, *Henri Bergson Oeuvres*(H.B.O.), p.517(*L'Évolution Créatrice* (E.C.), p.27)

합성물이 아니듯 생명 또한 단지 물리화학적인 요소만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란 유물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이 내려가려는 언덕길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노력이며 물질에 불확정성을 삽입하려는 것이다. 즉 생명이란 물질과 접촉해있는 동안은 약동(躍動 또는 飛躍, élan)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것이고, 생명 그 자체로 보면 측정 불가능한 잠재력이며 수백 수천의 경향이 서로 잠식해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잠식되어 있는 경향은 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외부화, 공간화를 통해서 수백 수천의 경향으로 분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화를 일종의 환경 및 물질에의 적응으로 생각하는 생물학적 진화론자들의 이론은 잘못된 것이다.

베르그송에 의하면, 생명이 개체 및 종으로 갈라지는 원인은 생명이 무기물질 쪽으로부터 받는 저항과 생명이 자기 속에 지니고 폭발력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의 방향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진화하는 도중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를 산포한다. 즉 생명은 일종의 경향이긴 하지만 경향의 본질은 다발모양으로 전개되는 것이어서 그것이 커지면 부채꼴 모양으로 발산방향을 넓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베르그송은 목적론자들이 말하듯 생명이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만약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생명의 출발점인 과거에 있다는 것이다. 즉 생명의 근원에서 같은 목적-생명의 충동에 의한 자유로운 행위를 가지고 있던 것이 다양한 방향으로 발산, 확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본질은 완만한 에너지의 축적과 이것의 급속한 방출에 있으며,²²⁾ 이것이 바로 생명의 약동이 물질을 횡단하여 일거에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진화란 예측불가능 한 것이며, 생

22) H.B.O., p.712(E.C., p.257)

물의 진화는 지금과 다를 수도 있었다. 만약 ‘필연이 있다면 에너지는 서서히 축적된다는 것과, 그 에너지를 신축자재하게 배수관에 넣고 일정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그 출구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²³⁾이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생명이 창조해가는 형태는 불확정적이고(*indéterminées*), 예견 불가능한(*imprévisibles*) 것이며, 생명을 나르는 역할을 하는 생명체의 활동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불확정적이 되며,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는(*de plus en plus libre*) 것이다.²⁴⁾ 즉 생명체를 예측불가능성이고 부단한 창조이며 자유로운 행위를 하는 유기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종도, 다시 말해 그 어느 생명체도 그것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거나, 진화의 차원에서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없다. 물질과 생명의 갈등과 이를 극복하는 생명의 약동의 측면에서 볼 때, 인류가 현재까지는 ‘가장 멀리 쏘아진 화살’임에는 틀림없지만 말이다. 이점에서 베르그송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세계관을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을 단계적으로 분명히 구분하였다. 광물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활동의 최하단계인 신진대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식물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을, 동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르그송에 의하면 이러한 단계적 구분은 그릇된 진화론, 목적론, 기계론이며 자연 철학을 해쳐온 오류중의 오류이다. 생명력은 원초에는 모든 경향들이 혼합되고 잠식되어 있는 카오스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23) H.B.O., p.711(E.C., p.256): “Deux choses seulement sont nécessaires; 1) une accumulation granduelle d'énergie; 2) une canalisation élastique de cette énergie dans des directions variables et indéterminable, au bout desquelles sont les actes libres.”

24) H.B.O., p.602(E.C., p.127).

무수한 과정과 다양한 생명력의 전개 속에서 각기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뉜 것이다. 즉, 생명충동의 본래적인 경향에서 볼 때에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에너지의 축적과 이것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의 급격한 방출을 위한 것이었고, 최초의 유기물질은 이 양자의 경향을 모두 갖는 것이었으나, 진화하는 동안 그 경향을 각기 극대화함으로써 양자의 구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물, 동물, 인류에로의 발산 방향은 유일무이한 것도 아니며 그 때의 경향도 서로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고 서로 섞여져 있는 것이다.

결국, 모든 생명은 다 물질의 저항을 이겨내고 생명의 비약을 통해 스스로 자유로워지려는 것이며, 진화상 그 어느 생명과 생명체가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베르그송의 주장이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의 동등함을 인정하는 베르그송의 생각은, 비록 '생명'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원효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원효도 평등성지(平等性智), 곧 평등의 진리를 깨우쳐 네 가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똑같이 적시는 '사등지정 등윤사생(四等之情 等潤四生)'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생명과 자유와 사랑

1. 원효: 무애의 진리와 자비

삶과 죽음에 대한 원효의 생각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설화는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는 사복의 설화이다. 보통 우리는 천민이던 사복의 어머니의 장례를 원효가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복이 원효의 제

자 또는 스승이었으며 깨달음을 얻어 연화장세계, 곧 열반의 세계에 죽은 어머니와 함께 원효보다 먼저 들어갔다고 해석하기도 한다.²⁵⁾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복이 어떤 인물이나가 아니라 원효의 말과 행동이다. 그는 죽은 사복의 어머니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축원했었다. 즉, ‘나지 말지어다. 그 죽음이 괴롭다. 죽지 말지어다. 그 태어남이 괴롭다.’ 그런데 사복이 이 말이 너무 번거롭다고 하니, 아니면 너무 뜻이 어렵다고 하니 원효는 다음과 같이 그 말을 줄였다. 즉, ‘죽고 나는 것이 괴롭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이다. 생은 곧 고통이며(生卽苦), 나아가서는 태어나고 죽는 것(生死)이 곧 고통이라는 것이다.²⁶⁾

하지만 “깨달음의 경계로 말하면 이곳도 없고 저 세계도 없으며, 생사 번뇌의 예토(穢土)와 불보살의 정토(淨土)가 본래 한 마음일 따름이니 생사와 열반이 마침내 서로 다른 ‘두 개의 진리’(二際)가 아니다”.²⁷⁾ 그러므로 참된 진리는 그 어떤 장애(障礙)도 없는 것이다. 또한 진리의 세계는 크고 작은 연장적 상대성, 빠르고 느리다는 시간적 상대성, 움직임과 멈춤이라는 운동의 상대성, 그리고 부분과 전체라는 구조적 상대성을 초월해 있다.

무장무애(無障無礙)한 법계의 법문을 살피면, 법이 아니면서 법아님이 없고 문이 아니면서 문이 아님이 없다. 진리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으며, 움직임도 멈춤도 아니고, 하나인 것도 여럿인 것도 아니다.²⁸⁾

그뿐만 아니라 진리는 하나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럿이기도 하며, 무

25) 김상현, 상동, pp.150-155; 김상현, 『신라화엄사상사연구』(민족사, 1991), pp. 161-164 참조.

26) 김상현, 『역사로 읽는 원효』, p.153쪽, 163.

27) 『무량수경종요』(『국역 원효성사전서』 권1, p.546).

28) 『진역화엄경소』 서문(『국역 원효성사전서』 권3, pp.325-327) .

한히 커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동시에 무한히 작아서 그 어떤 작은 것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시공 안에 들어있으며 동시에 시공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 즉 삶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죽음이기도 하고, 삶도 죽음도 아니기도 하고, 삶과 죽음 그 자체이기도 하며, 삶과 죽음을 모두 초월한 열반이기도 하고, 생사도 열반도 아니기도 하다.

대(大)가 아닌 까닭에 극미(極微)를 만들어도 남김이 없고, 소(小)가 아니기에 태허(太虛)라 하더라도 넉넉함이 있다. 빠르지 않은 까닭에 능히 삼겁(三劫)을 안으며, 느리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한 순간 안에 밀어 넣는다. 움직임도 멈춤도 아니므로 생사(生死)가 열반이고 열반이 생사이며, 하나도 여럿도 아닌 까닭에 하나의 법이 일체 법이고 일체법이 하나의 법이다. …찰나 안에 무변삼세(無邊三世)를 드러나게 하고, 시방세계를 한 티끌 안에 넣을 수 있다(不過一念普現無邊三世 十方世界咸入一微塵內)²⁹⁾

그러나 원효에 의하면 이러한 참된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고 불쌍한 중생들은 자신의 주장과 생각에 집착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특히 '있음'과 '현상'에 집착하는 자들은 유한한 생명체, 곧 위태로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사의 바다에 빠져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까닭은 이렇게 생사의 고통(生死苦)에서 헤어날 수 없는 중생들이 더 이상 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不生不滅), 가지도 오지도 않고(不去不來), 같지도 다르지도 않으며(不一不異), 끊어지지도 영원하지도 않은(不斷不常) 진리의 세계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다.

유상(有相)에 집착하는 자는 유대(有待)의 위태로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한한 법상(法相)을 따라 재촉하기를 마지않고 허명만을 따라 길이 생사의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공무(空無)에 막힌 자는 알지도 못하는 캄캄한 뜻만 믿고 지혜를 날게 하는 교문(教門)을 등지며 흐려지고 취하여서 깨닫지 못하고서 머리만 고덕일 뿐

29) 『진역화엄경소』 서문(『국역 원효성사전서』권3, pp.328-330) .

배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때문에 여래께서 무연(無緣)의 대비(大悲)로 저 이류(二類, 有와 無에 집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불도(佛道)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두 권의 영락법문(瓔珞法門)³⁰⁾을 설하신 것이다. 이는 생사고(生死苦)에 길게 떠도는 자로 하여금 멈추게 하여 팔불(八不)³¹⁾의 탄탄한 길에 노닐게 하고, '일곱 개 자만의 높은 마음(七慢高心)'을 꺾게 하며 혼취(憒醉)한 자가 깨달아서 육입(六入)의 밝은 문을 세우고 '다섯 가지 번뇌(五住)'의 암진(闇陣)을 조복(調伏)받게 하려는 것이다.³²⁾

그렇지만 어리석은 중생에게는 '일곱 가지 자만심'을 버리고, '다섯 개의 번뇌'도 버리고 여덟 개의 아님(八不)을 깨달아 생사의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결코 쉬울 수가 없다. 그것을 깨기만 하며, 곧 깨우치기만 하면, 생사와 열반을 뛰어넘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겠지만, “근원에 돌아가는 대각(大覺)은 공을 쌓은 뒤에야 비로소 얻는 것이니, 생사의 흐름을 따르는 긴 꿈을 단번에 깰 수는 없는 것이다.”³³⁾

본원(本源)으로 돌아가기 위해 크게 깨닫고자 한다면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한다. 그것은 장구한 세월동안 중생의 큰 꿈속에서 생사를 따라 유전하였기 때문에 쉽게 돌아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³⁴⁾

그러므로 어리석은 중생이 이런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위해서는 '보살의 마음과 행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살계라는 것은 생사에 유전(流轉)하는 죄업을 돌리어서 생사가 없는 절대(深遠)에 돌아가게 하는 '큰 연줄의 나루터'가 되며, 또 샅된 것을 없애고 바른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필수적인 문'이 되는 것”³⁵⁾이기 때문이다.

30) 『영락본업경』을 뜻함.

31) 不生·不滅·不去·不來·不一·不異·不斷·不常한 모든 법의 眞相을 뜻함 (『국역 원효성사전서』 권3, p.419 참조).

32) 『영락본업경소』 서문(『국역 원효성사전서』 권3, pp.417-419).

33) 『무량수경중요』(『국역 원효성사전서』 권1, p.546).

34) 『유심안락도』(『국역 원효성사전서』 권6, pp.68-69).

삶과 죽음, 곧 생사에 차별이 없음을 깨닫고, 생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생사와 열반의 구분으로부터 벗어난 참된 자유를 모든 중생이 다 얻기를 바라는 것이 부처님의 염원이요, 보살들의 염원이며, 조사들의 염원이고, 또한 원효의 염원이다. 원효에게 있어서도 중생, 곧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자비(慈悲)의 마음, 사랑은 한도 끝도 없다. 원효는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의 참된 자유의 의미를 어리석고 불쌍한 중생들이 쉽게 깨닫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자유의 춤과 노래, 즉 무애무(無碍舞)와 무애가(無碍歌)를 추고 노래하며 다녔던 것이다.³⁶⁾

미륵보살은 원근(遠近)을 헤아릴 수 없고, 심천(深淺)도 헤아릴 수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심(心)도 아니고 색(色)도 아니다. 천지도 그 공을 얻을 수 없고, 우주도 그 덕을 가능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그 시작을 말한다면 자정(慈定)으로부터 비쳐지는 성한 광명을 느끼어 널리 중생을 제도할 도심을 발하고, …사등(四等)³⁷⁾의 정(情)으로 사생(四生)³⁸⁾을 골고루 흠뻑 젖게 하며, 과거·현재·미래를 아는 삼명(三明)의 지혜로 육계·색계·무색계의 삼계(三界)를 밝게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을 논한다면, '진리의 구름(法雲) 속에서 고해를 건너고 번뇌의 '긴 꿈(長夢)에서 등각(等覺), 곧 모두 다 평등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발하여 이장(二障)으로 겹겹이 싸인 어둠을 물리치고 사지(四智)의 명경(明鏡)을 비추며 육통(六通)의 보차(寶車)를 타고 '천 세계(八極)의 광야에 놀아 '천 가지 만 가지의 다른 모습'(千應萬化)의 슬로써 백억(百億)의 지역에서 중생제도의 일에 오로지 할 뿐이다.³⁹⁾

미륵보살은 중생을 제도할 도심을 발하고 '자애롭고 불쌍하게 여기며 항상 기뻐하고 집착함이 없는 네 가지 마음', 곧 사등(四等)의 정으로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 곧 사생(四生)을 골고루 흠뻑 젖게 하고자 이

35) 『菩薩戒本持犯要記』(『국역 원효성사전서』권4, pp.455-456)

36) 김상현, 『역사로 읽는 원효』, pp.134-135 참조.

37) 慈悲喜捨를 의미함(『국역 원효성사전서』권2, p.142 참조).

38) 胎卵濕化의 네 가지 生 또는 일체 중생을 뜻함(상동).

39) 『미륵상생경중요』(『국역 원효성사전서』권2, pp.138-143).

세상 모든 곳에서 중생제도의 일에 오로지 할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는다. 오직 고통의 바다와 번뇌의 긴 꿈을 벗어나 모든 생명체들이 참된 진리 안에 두루 다 해탈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 미륵보살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보살의 중생제도(衆生濟度)의 모범을 본받음으로써 스스로 보살이 될 수 있다.

미륵보살(彌勒菩薩)이란 우리나라의 말뜻으로는 자비각사(慈氏覺士, 자비하신 깨달은 이)이다. …도솔타(兜率陀)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지족(知足)이라고 이르는 것이니 욕계(欲界)의 육천(六天)⁴⁰⁾ 가운데 이는 ‘네 번째’(第四天)가 된다. 아래의 셋은 욕정이 무거워 가라앉게 되고, 위의 둘은 ‘들뜨고 방일’(浮逸)하는 마음이 많다. 이 사천(四天)은 욕심이 가볍고 방일하는 마음이 적어서 가라앉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으며, 티끌에 섞이지도 않기 때문에 지족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모든 용구(用具)를 받아들일 때, 영작(營作)을 기다리지 않고 생각에 따라 자연히 되므로 이름을 천(天)이라 한 것이요, 보살은 인간에서부터 승천(昇天)하기 때문에 상생(上生)이라고 이른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가지고 피천(彼天)을 관(觀)하면…죽음이 있는 범진(凡塵) 세계를 여월 것이다.⁴¹⁾

자신의 욕심에 짓눌리지도 않고 분분히 마음을 사방에 흩어버리는 들 뜬 마음도 아닌 상태, 곧 이 지족(知足)이라는 것은 ‘족함을 안다’는 것이니 다른 말로 하면 유교의 선비들이 그렇게 추구해 마지않았던 자족(自足)과 닮은 것이다. 또한 사랑을 베푸는 것과 베푼 사랑에 의한 중생의 깨달음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리던 사람 스스로가 큰 바위 얼굴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닮아감’이 바로 ‘상생(相生)’이며, 이 ‘더불어 사는 삶’, ‘함께하는 삶’,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가르치는 <미륵

40) 四王天·初利天·夜摩天·兜率天·和樂天·他化自在天(『국역 원효성사전서』 권2, p.147) 참조.

41) 『미륵상생경중요』(『국역 원효성사전서』 권2, pp.145-146).

상생경>이 생겨난 이유이다.

이 경은 올바로 '보고 행함'(觀行)의 인과(因果)로써 종(宗)으로 삼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나서 길이 퇴전(退轉)함이 없게 하는 것'(令人生天 永無退轉)으로 의치(意致)를 삼는다.···'이루어짐'(果)에는 대략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싹과 줄기가 땅을 여의는 과(果)요, 둘째는 꽃과 잎이 서늘한 그늘이 되는 과요, 셋째는 묘한 꽃이 활짝 피는 과요, 넷째는 향기로운 열매가 성취되는 과다.⁴²⁾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원효가 여기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겹을 벗고 하늘에 태어나는 과정을 식물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베르그송이 생명이 물질의 저항을 이겨내고 그 진화를 완성해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아 보인다. 더구나 원효가 말하는 승천(昇天)과 생천(生天)은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말하는 '생명의 약동' 및 '사랑의 비약'과 매우 닮아 있다. 어쨌든 원효에게 있어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이며, 모든 생명체를 다 귀하고 동등하게 여기며 아낌없이 자비, 곧 사랑을 베푸는 존재이다(同體大悲).⁴³⁾

2. 베르그송: 생명과 창조, 생명의 도약

베르그송의 철학에 대한 이해 없이 '창조적 진화론'이라는 말을 접할 때 그 자체에 모순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생물이 미생물에서 점점 고등생물로 진화되어 왔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에게 있어서 창조란 의미는 인간의 지성과 과학이 덜 발달된 상태에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제시된 것에 불과한 것이

42) 『미륵상생경중요』(『국역 원효성사전서』권2, p.147, pp.149-150).

43) 김형효, 『원효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한국사상사에서의 위치』(김지건 편, 『원효성사의 철학세계』, pp.645-646) 참조.

며, 반대로 절대자의 우주창조를 믿는 이들에게는 진화란 의미는 창조주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르그송은 생명(삶)의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와 진화의 두 단어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즉, 베르그송에 의하면 생명의 약동(비약, élan vital) 그 자체가 창조의 요구(exigence de création)를 의미하며 ‘세계의 창조는 자유행위’이고 ‘생명은 물질세계 내부에서 그러한 자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⁴⁴⁾ 따라서 이 우주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완성되어 가는 것, 즉 새로운 세계의 참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주 안에서 새로운 발명이나 창조가 없다면 시간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시간은 발명이거나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⁴⁵⁾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속으로서의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따라서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끊임없는 창조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神)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다. 하나의 끊임없는 분출과정으로 밖에는 이해될 수 없는 존재이다. 세계가 끊임없이 그로부터 불꽃처럼 분출되는 그 중심이다. 미리 완성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끊임없는 생명 그 자체요, 활동이며 자유다.⁴⁶⁾

44) H.B.O., p.705(E.C., p.248): “La creation d'un monde est un achte libre... La vie, a l'interieur du monde materiel, partipe de cette liberté.”

45) H.B.O., p.784(E.C., p.341): “Le temps est invention ou il n'est rien du tout.”

46) H.B.O., p.706(E.C., p.249): “je parle d'un centre d'ou les monde jailliraient comme les fusées d'un immense bouquet, - pourvu toutfois pour une continuite de jaillissement. Dieu,ainsi defini, n'a rien de tout fait; il estvie incessante, action, liberté.”

그러므로 베르그송이 말하는 창조란 우주적인 차원에서나 인간의 차원에서나 간에 끊임없이 완성되어 가는 생명의 자유로운 행위를 의미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창조와 진화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즉, 생명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진화(évolution)'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 환원하면 하나의 끊임없는 변형(transformation incessante)인 것이다.⁴⁷⁾ 즉, 생명이란 예견불능의 미래를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서 끊임없이 창조하는 생성, 변화, 성숙으로서의 지속이며, 진화란 결국 생명의 약동이 물질의 저항을 이겨내는 변형의 작업이기에 결국 창조를 의미하기에, 창조와 진화는 결국 생명의 약동(비약, élan vital)이라는 힘의 두 가지 다른 표현인 셈이다. 다시 말해, 진화란 자유로운 행위에 의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의 부단한 창조이며 이를 우리는 생명의 약동(비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약동이야말로 새로운 종을 창조하는 진화의 원인이다.⁴⁸⁾

베르그송에 의하면, 최초의 유기체의 생명형태가 식물형태와 동물형태 사이를 넘나들면서 이 양자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서로 얽혀있던 경향들 가운데에서 식물은 고착성과 무의식성을 지니게 되었고 동물은 운동성과 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동물이 차츰 자유롭게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고 한다면, 식물은 오히려 제자리에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체계를 갖추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경향이 애초부터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경향을 극한으로까지 발전시키고 분산화한 결과일 뿐이다. 식물적인 고착성, 본능, 지성의 세 가지가 동식물이 공통으로 지녔던 생명충동의 요소이다. 다만 식물

47) H.B.O., p.691(E.C., p.232).

48) H.B.O., p.569(E.C., p.88).

은 자유로운 행위를 지향하는 생명의 약동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동물의 진화이다. 즉 생명의 충동 그 자체가 운동을 향하고 있고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의 급격한 에너지 방출에 있기 때문에 동물이 식물보다 더 생명의 근본적인 본질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계의 진화는 두개의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데, 그것은 본능과 지성이다. 이 두 경향을 각기 그 정상에까지 밀고 간 것이 절족동물인 곤충류와, 척추동물인 인류이다. 즉 곤충류, 그 중 특히 벌목, 곧 막시류(膜翅類)는 본능이 가장 발달한 경우이며, 인류는 지성이 가장 발달한 경우이다. 그래서 “의식은 인간의 경우 무엇보다도 우선 지성인 것이다.”⁴⁹⁾ 다만 이 지성은 생명을 생명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크나큰 결점을 갖는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의식은 직관일 수 있었고 또한 분명히 직관이어야 했던 것 같다. 직관과 지성은 의식적 작업의 상반된 두 개의 방향을 나타낸다. 즉 직관은 바로 생명의 방향으로 향하고 지성은 물질의 운동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인류의 직관능력은 거의 완전히 지성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다.”⁵⁰⁾

그러나 인간사회가 지성적인 것에 의해서 자신의 본질을 잃는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의지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 의지를 연장시키는 충동 속에 둘 때, 사상은 끊임 없는 증대이며 한없이 계속되는 창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 즉, 창조란 어떤 ‘신비(mystère)’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

49) H.B.O., p.721(E.C., p.267): “La conscience, chez l'homme, est surtout intelligence.”

50) Ibid.: “Elle aurait pu, elle aurait du, semble-t-il, être aussi intuition...dans l'humanité don't nous faisons partie, l'intuition est à peu près complètement sacrifié à l'intelligence.”

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 속에 '체험(expérimentation)'하는 것이다.⁵¹⁾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 '창조는 정신의 단순한 행위'⁵²⁾이며 '우리는 끊임 없이 자신을 창조'⁵³⁾해가고 있는 자유로운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는 성숙이며 성숙은 곧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격은 이 과정을 통하여 점차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발명, 즉 창조를 내포하고 있는 인간의 업적, 자유를 내포하고 있는 의지행위, 자발성을 나타내는 유기체의 운동은 새로운 무엇을 세계에 가져다준다.⁵⁴⁾

한 예로써, 예술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예술가의 작업의 지속은 작업의 완전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창조의 시간은 창조 그 자체와 하나가 된다. 따라서 형상을 자기 영혼 속에서 끌어내어 창조하는 예술가에게 있어서 시간은 부속물이 아니다. 마치 시작(詩作)이 결코 단순한 음소와 단어의 조립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자기 생명력의 용수철을 가능한 한 팽창시켜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 소재의 단순한 조립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을 창조한다는 것이다.⁵⁵⁾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창조와 자유는 동의어이다.⁵⁶⁾ 따라서 인간사회는 인간의 이러한 창조적 행위를 돕고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자체의 보존을 위해 자유가 제한되고 강제와 억압이 주어지는 닫힌 사회(closed society)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사회가 모두 다 이상적인 열린사회(open society)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처럼 사회에도 속해있다.

51) H.B.O., p.706(E.C., p.249).

52) H.B.O., p.698(E.C., p.241): "Cette création est un acte simple de l'esprit."

53) H.B.O., p.500(E.C., p.7): "Nous créons continuellement nous-mêmes."

54) H.B.O., p.698(E.C., p.241).

55) H.B.O., p.783(E.C., p.340).

56) H.B.O., p.718(E.C., p.264): "le conscience est synonyme d'invention et de liberté."

그러므로 우리는 무인도에 가더라도 자신의 사회적 자아(social-ego)를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⁵⁷⁾ 그리고 이런 사회적 자아는 우리로 하여금 복종(obligation)과 의무를 우선으로 하는 닫힌도덕(closed moral)의 세계에서 살도록 하는데, 이것은 지성보다도 더 낮은(infra-intellect) 본능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성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 있으며, 생명과 삶 자체의 창조적인 원천과 관련지어진 직관과 지속의 세계와는 매우 거리가 있다.

이와는 달리, 강요(obligation)가 아니라 열망(aspiration)의 윤리가 이끌어가는 열린도덕(open moral)은 이상적인 인간상, 이상적인 열린사회와 연관된다. 사회의 강제적인 의무에 복종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생명과 삶 자체의 창조적인 원천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간사회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지성을 초월하는 신비적인 힘의 단계이며, 우리가 정감(emotion)이라고 부르는 이 신비한 생명의 힘은 우리의 삶을 ‘창조적인 움직임(mouvement créatrice)’이 되도록 한다.

사실 모든 생명은 진화하도록 창조되었으며, 자기 생명의 도약을 위해 물질의 저항을 이겨내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자유와 창조는 모든 생명체의 공동의 목표이다.⁵⁸⁾ 그렇지만 특히 인간은 현재 그 진화의 맨 끝에 서 있으며,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더욱 고양(高揚)시키는 ‘사랑의 비약’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 하는 존재이다.⁵⁹⁾ 따라서 열린도덕(open moral)의 열린사회에서는 ‘참된 영웅들’과 ‘성인(聖人)들’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고(l'appell d'une personnalité)’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응답(le réponse)’ 하려는 과정에서 ‘사랑의 비약(élan d'amour)’을

57) H.B.O., p.985-6(Les Deux Sources de la Morale et de la Religion(M.R.), p.6-8; 강영계 역,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탐구당, 1985), pp.14-15 참조.

58) H.B.O., p.1055-1056(M.R., p.97-98): 강영계 역, 98-99쪽 참조.

59) H.B.O., p.1059-1060(M.R., p.101-103): 강영계 역, 103-104쪽 참조.

이루게 된다.⁶⁰⁾ 이는 마치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던 사람이 스스로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되는 것과 같다. 인간의 의식을 포함한 생명과 그 지속 자체가 곧 자유이기에 영웅들과 성인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 그 자체이며 가장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행위인 것이며, 이러한 사랑에 의해 변화해가는 것이 진화의 가장 끝에 서있는 인간이라는 생물중, 곧 인간사회의 올바른 진화방향인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는 그 활동에 있어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바, 자신의 부단한 노력 없이는 그 습관은 우리의 자유를 질식시켜버리고 만다.”⁶¹⁾ 따라서 우리는 부단한 자기극복과 창조를 통해서만 참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되찾는 것이며 순수지속 가운데 자신을 다시 두는 것”⁶²⁾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비에 바탕을 두는 역동적인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위대한 신비인 것은 한 개별자, 곧 인간이 물질적인 본질로 종(種)에게 주어진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신성(神性)과의 의사소통이며, ‘신과의 신비적인 일치(mystical union with God)’이며 이를 통한 인간 삶의 초월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베르그송의 철학과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만난다. 즉, 베르그송은 불꽃처럼 분출하는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 곧 생명의 힘으로서의 신(神)은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랑이라고 정의되어야 하며, ‘신비주의적 직관(l'intuition mystique)’의 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의 본질(l'essence même de Dieu)은 숭고한 사랑(sublime amour)⁶³⁾인 것이다. 결국 인간의 변화와 창조와 초월은

60) H.B.O., p. 1003-1005(M.R., p.29-31): 강영계 역, 34-36쪽 참조.

61) H.B.O., p.605: “Notre Liberté...créé les habitudes naissantes qui l'étoufferont si elle ne se renouvelle par un effort costant.”

62) H.B.O., p.151: “Agir librement, c'est reprendre possession de soi, c'est ce replacer dans la pure durée.”

63) H.B.O., p.1190(M.R., p.268);H. Bergson, 강영계 역, 『도덕과 종교의 주 원

결국 이 종교적인 사랑의 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베르그송의 견해이다.

IV. 결 론

원효와 베르그송은 사용하는 술어(terminology)도 매우 다르고 출발 점도 다르고 과정도 서로 매우 다르다. 뿐만 아니라, 시대도 다르며 종교적 문화적 전통도 서로 매우 이질적이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장을 살펴보면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종착점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원효가 말하고 있는 바는, 1) 생사열반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며, 2)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것이며(等覺, 平等性智), 2) 많은 공적을 쌓아야 땅을 떠나 잎과 꽃과 열매를 얻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니, 4) 자신의 생명을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하고 승화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부단히 노력해야하며(頗行朝哉, 莫速急乎), 5) 이를 통하여 생사, 생사열반에 차별이 없음을 깨달아, 생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6) 중생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무장무애의 한 사랑을 베푸는 자는 부처, 미륵보살과 같은 자비각사라는 것, 7) 그들은 사랑의 화신이며, 그들의 진리에 대한 사랑은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다(同體大悲, 同體智力, 無緣大悲, 無上菩提).

한편, 베르그송 생철학에서 말하는 생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즉, 1) 생명은 부단한 흐름이며 지속이라는 것, 2) 우주적 진화의 차원에서 볼 때 모든 생명은 다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것,

천』(탐구당, 1985), p.262조.

3) 생명의 본질은 물질의 저항을 이겨내고 그 힘을 창조적으로 발산하는 약동이라는 것, 4)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창조와 진화, 창조와 자유는 같은 의미라는 것⁶⁴⁾, 5) 인간의 삶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발산은 사랑의 비약이라는 것이며, 7) 이를 실천하는 자를 참된 영웅과 성인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원효와 베르그송의 생명에 대한 이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1) 생명의 소중한고 평등하다는 것, 2) 찰나에 불과할 만큼 유한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유한자의 삶이지만, 3)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이상이며, 4) 특히 인간존재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이고, 5) 또 뛰어넘어야 하는 존재이며, 6) 그것이 깨달음이 되었던 직관이 되었던 인간만이 지닌 독특한 능력을 통해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인간은 참된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며, 8) 자유로운 삶은 동시에 창조적 삶을 의미하며, 9) 보살이라 불리던, 성인이나 영웅이 되었던, 신성을 가지고 있든, 다만 인간일 뿐이든, 불쌍하고 어리석은 중생이 참된 진리를 깨달아 참된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존재는 사랑 또는 자비의 마음으로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며, 10) 이를 좇음으로서 인간은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된다는 것이다.

원효는 자유의 춤과 노래, 즉 무애무(無碍舞)와 무애가(無碍歌)를 추고 노래하며 중생들을 교화하고자 하였다.⁶⁵⁾ 베르그송은 부름과 응답을 통한 사랑의 비약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중생을 무한히 사랑하여 그들을 구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삼보에 귀의하는 구도자의 모습은 베르그송이 말하는 부름과 응답을 통하여 사랑의 비약을 이루도록 돕는 참된 영웅들 및 성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64) 김진성, 『베르그송연구』(문학과 지성사, 1985), p.44 참조.

65) 김상현, 『역사로 읽는 원효』, pp.134-135.

베르그송의 철학은 ‘생명’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화와 창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음으로써 결국은 그리스도교와의 일치점을 찾
 는다. 즉, 베르그송의 끊임없이 용솨음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신, 부
 림과 응답 및 이를 통한 사랑의 비약의 궁극적 귀착점으로서의 신, 곧
 사랑의 약동 그 자체로서의 신을 상정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원효
 는 ‘등각(等覺)’과 ‘무상보리(無上菩提)’를 말하며 생사열반이 서로 다르
 지 않다고 가르칠 뿐 신, 또는 초월자를 내세우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들이 말하는 사랑 곧 자비를 통한 승화(昇華) 또는 초월(Transzendenz)
 은 서로 매우 닮아 있다. 물론 ‘신성과의 신비스런 일치’가 ‘등각(等覺)’
 과 결코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원효와 베르그송이 모두 ‘생명(체)’에
 대한 자비 곧 사랑을 가르침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는 원효와 베르그송 철학의 일치점 및 불교와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동
 일함과 동등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결국,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원효와 베르그송이 공통적으로 제시하
 고 있는 것을 ‘해석학적’인 의미에서 표현한다면, 1) 모든 생명의 동등
 함, 2)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 삶에 대한 긍정, 곧, 생명과 자유가 될
 것이며, 3)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사랑, 곧 생명과 사랑이다. 두 위
 대한 철학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치열하게 물질의 저항을 이겨내고 자신
 의 삶(생명)을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하고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상현, 『신라화엄사상사연구』(서울, 민족사, 1991).
 김상현, 『역사로 읽는 원효』(서울, 고려원, 1994).
 김지견 편, 『원효성사의 철학세계』(서울, 민족사, 1989).
 김진성, 『베르그송연구』(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 일연, 이민수 역, 『삼국유사』(서울, 을유문화사, 1984).
- 원효, 원효전서국역간행회 역, 『국역 원효성사전서』(서울, 보림각, 1987).
- 원효 외, 이기영 역, 『한국의 불교사상』(서울, 삼성출판사, 1976).
- 김형효, 『원효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한국사상사에서의 위치』(김지견 편, 『원효 성사의 철학세계』).
- 윤종갑, 『한국고대불교와 생명윤리』(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편, 『한국문화와 생명윤리』(국제학술회의 논문집, 2004.2.)).
- 의상, 이기영 역, 『화엄일승법계도』(『한국의 불교사상』, 삼성출판사, 서울, 1976).
- 정순일, 『大乘六情懺悔』考(김지견 편, 『원효성사의 철학세계』).

- Bergson, H., *Henri Bergson Ouevres* (H.B.O.),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1970.
- Bergson, H., *Deux Sources de la Moral et Religion* (1932, M.R.) in H.B.O., pp.980-1250.
- Bergson, H., *L'Évolution Créatrice* (1911, E.C.) in H.B.O., pp.485-809.
- Bergson, H., 강영계 역,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탐구당, 1985.
- Dilthey, W.,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Suhrkamp Verlag, Frakfurt am Main, 1981.
- Gasset, Ortega Y., *The Revolt of Masses* (1930), Norton Paperback, New York, 1993.
- Platon, *Apologie-Kriton-Phadon*, Patmos Verlag, Düsseldorf/Zürich, 2004.
- Riedel, Manfred, Einleitung in Wilhelm Dilthey in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Suhrkamp Verlag, Frakfurt am Main, 1981, pp.9-86.

Abstract

***Wonhyo* and *H. Bergson's* Understanding of 'Life':
A Hermeneutical Comparison**

Han, Sangwoo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hile the matter of 'Living' and 'Life' has been the most aged and essential question to us, it does not seem that the newly appeared questions as to 'Life' can hardly be solved by traditional religious and philosophical thoughts. However, we are 'historical and cultural being'. Therefore we have to solve the questions about 'Life' newly given to us only through the method of '*Review the old and Learn the new* (ongojisin)'. And also if the cultures are different, so are the values and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s. We, thus, need to examine what the value formed in our cultural tradition is. Our present culture is mixed with traditional Korean, Buddhistic, Confucian elements and Western -Greek, Roman, German, etc.- ones. This means that we should examine the western philosophy as well as our traditional thoughts.

So this meaning lead us to compare the thoughts about 'Life' of two philosophers-*Wonhyo* and *H. Bergson* with very different background of age, history, culture, religion. To express the subjects as to the matter of 'Life' in the meaning of 'Hermeneutics', commonly

suggested by *Wonhyo* and *H. Bergson*, they are; 1) Equality of all Lives, 2) Affirmation to creative lives transcending the limit, it must be 'Life and Liberty', 3) Love for the all living creatures, it must be 'Life and Love(Mercy)'. Two great philosophers advise us to make efforts to overcome the resistance of material severely, to raise and sublimate one's Living(Life) into an upper level.

Key-words : Life, Equality, Liberty, Love(Mercy), Sublimation